

이차전지

Sector Issue Brief

2026. 6. 1

Check Point

- 1~4월 EV 판매 증가율 둔화세 지속
- EV향 배터리 각형 및 LFP M/S 확대 지속
- 수요 비중 가장 큰 EV향 data 다소 우려

4월 EV향 배터리 data

| Analyst 정경희 | khchung@ls-sec.co.kr

EV 판매량 4월 YoY +9%, 1~4월 누적 기준 +4%, '21년 이후 판매량 성장률 둔화 이어져

SNE Research가 5월 29일 4월 Global EV & Battery Monthly Tracker data 발표. 이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 EV 판매량은 약 2.67백만 대(MoM -14%, YoY +9%). 분기말 밀어내기식 판매 이후 분기초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3월보다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전과 유사. 4월 기준 전년대비 9% 판매 증가. 월별 판매량은 등락이 있으므로, 1~4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년대비 전체 EV판매량 4% 증가. 세부적으로 보면 BEV 7%, HEV 7%, PHEV -8% 시현.

단, 21년 이후 1~4월 누적 판매량 증가율과 비교하면 '26년 1~4월의 성장률 둔화 두드러져. '21년 141%에서 '26년 4%로 변화. 1~4월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Top 3지역인 중국 -13%, 유럽 19%, 북미 -5%로 전년 성장률 대비 51%p, 4%p, 31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

4월 EV 배터리 YoY 23%, 1~4월 누적 기준 YoY 14% 단 각형 M/S 확장 및 한국 셀 3사 M/S 하락 지속

4월 글로벌 EV향 이차전지 탑재량은 106GWh로 YoY 23%, MoM -5% 기록. 1~4월 누적 기준 글로벌 EV향 배터리 탑재량은 전년대비 1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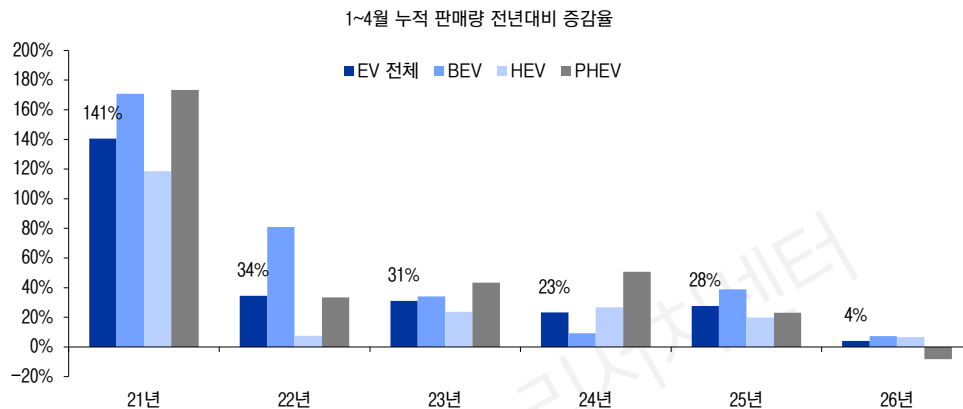
EV향 폼팩터별 M/S에서 각형 확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, 한국 셀사에 부정적. 1) 각형은 '20년 49%에서, '25년 80%, '26년1~4월 기준 81%로 확장 지속. 국내 유일 EV향 각형 생산사인 SDI의 각형 M/S는 '20년 12%에서 '25년3%, '26년 1~4월 2%로 하락, 각형 성장 속 SDI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. 2) 파우치형은 LGES 및 SK On이 시장 양분한 상황이나, 글로벌 파우치형의 M/S가 '20년 28%에서 '25년 11%로 감소, 동 폼팩터 확장성 우려. 3) TESLA 중심의 원통형은 Panasonic과 LGES이 시장을 양분한 상황, 따라서 TESLA의 Q 성장 필요.

단, 1~4월 누적 기준 원통형 M/S에서 '26년 LGES 29%에서 43%으로 상승, Panasonic 48%에서 43%으로 감소한 것은 TESLA의 영향. LGES은 주로 TESLA의 중국과 유럽 물량이 크고, Panasonic은 북미향 비중이 절대적. 이는 지역분산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AMPC에 다소 부정적. 1~4월 M/S 증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럽의 EV 판매 및 TESLA의 유럽, 중국 판매량 일부 회복에 기인한 것. 월별 변동성 및 가동률, AMPC 측면에서 양사 비교시 LGES 포지션 다소 열위. 3사 글로벌 M/S 각각 -0.5%p(LGES)~-1%(SK On, SDI) 감소. 한국 셀사의 주된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M/S 확장 제약받을 듯

배터리 Chemistry에서 LFP M/S가 '25년 54%에서 '26년 4월 59%로 증가, LiB는 46%에서 40%로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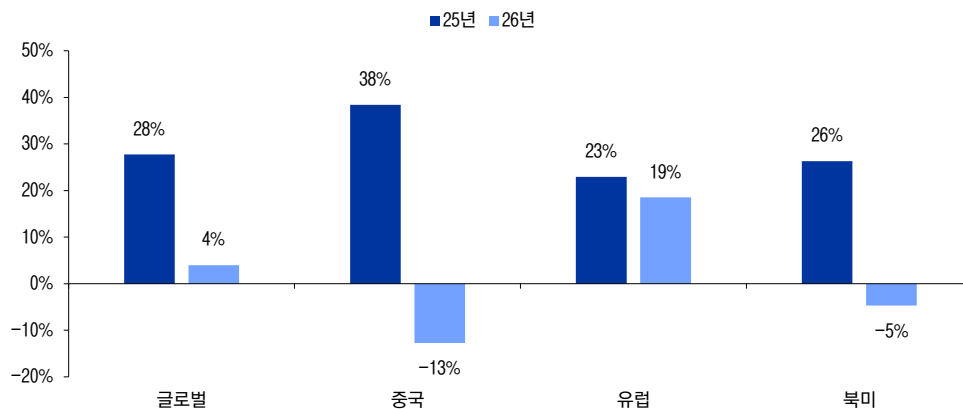
결론적으로 4월 및 1~4월 누적 기준, 글로벌 EV향 배터리에서 각형과 LFP 비중 확대를 확인, 한국 셀3사에 다소 부정적. 원통형과 파우치형 M/S 축소 하에 TESLA 중심 원통형에서 LGES의 M/S가 증가하였으나, 이는 북미는 Panasonic, 중국 및 유럽은 LGES 중심 TESLA 탑재에 따라 유럽내 물량 회복, 북미 역성장에 기인한 것. 전체 배터리 M/S 하락세 지속 다소 우려. 이차전지 전체 수요에서 EV향 비중이 여전히 60%를 상회하는 가장 주요한 부문을 감안할 때 각형 및 LFP 확장세 유의할 필요

그림1 전체 EV 및 BEV, HEV, PHEV 판매량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율 추이 (1~4월 누적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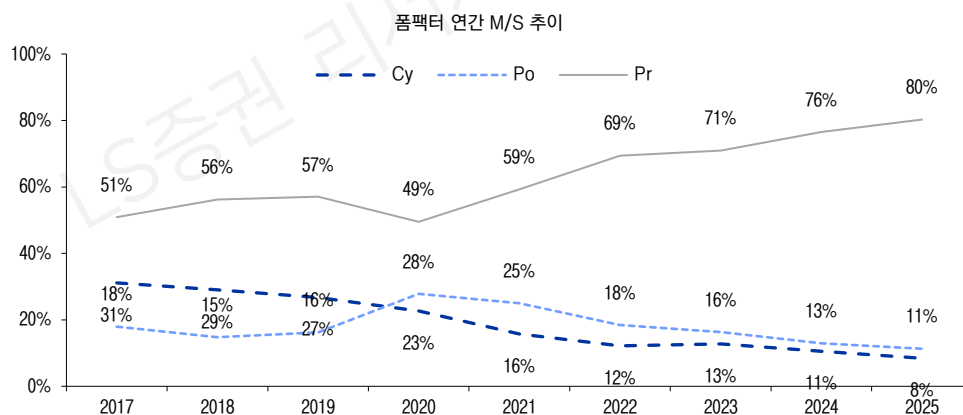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글로벌 및 주요 EV 판매지역 전년대비 판매량 증감율(1~4월 누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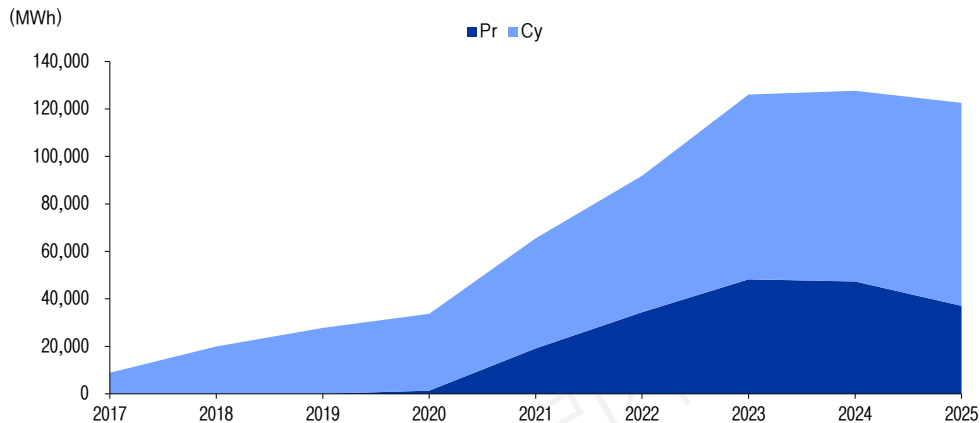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EV 향 배터리 폼팩터별 M/S 추이(연간): 각형 선점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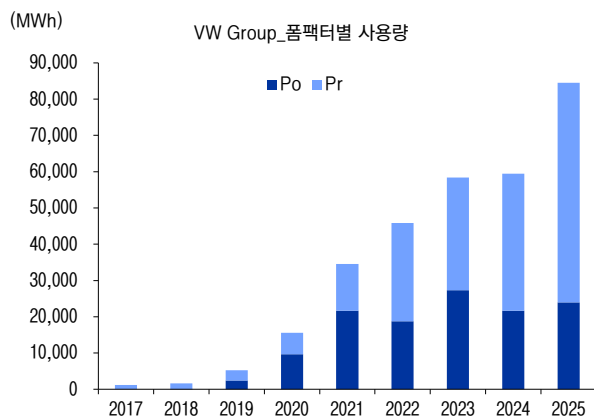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원통형 OEM의 대표주자, TESLA 도 각형 탑재


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주요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_VW Grou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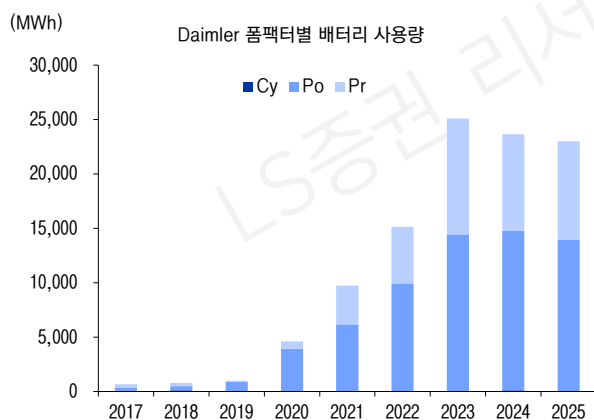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중국 OEM이지만 일부 국내 셀 사용한 OE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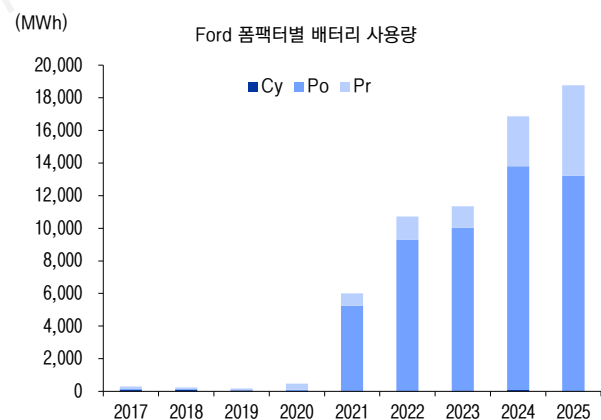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주요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_Daiml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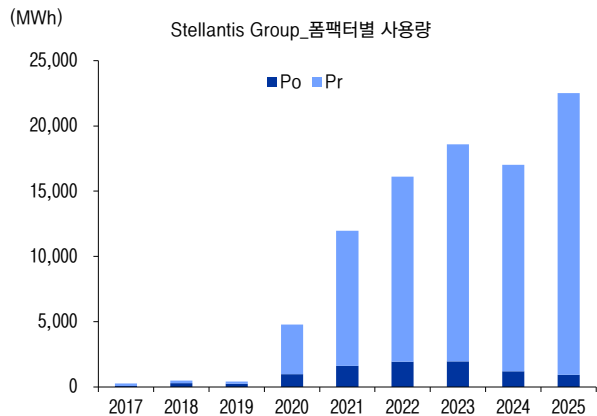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주요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_Ford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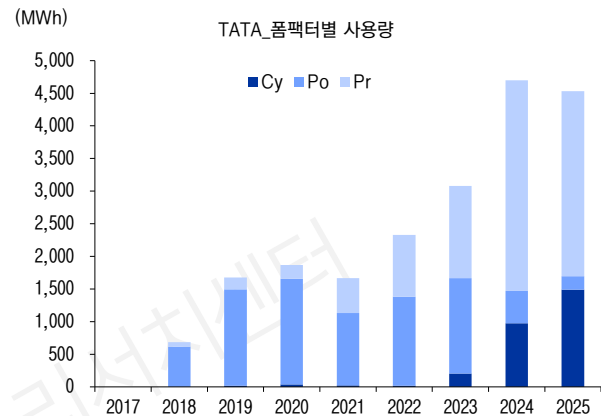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9 주요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_Stellanti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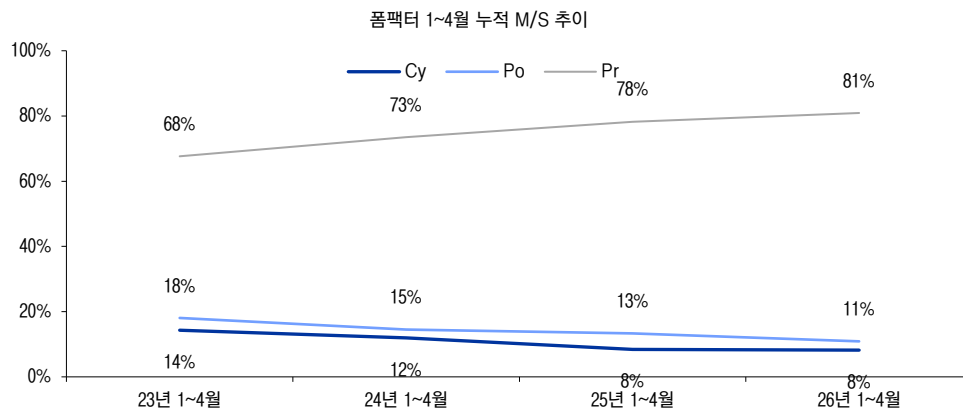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0 주요 고객인 비중국 OEM의 각형 채택_TAT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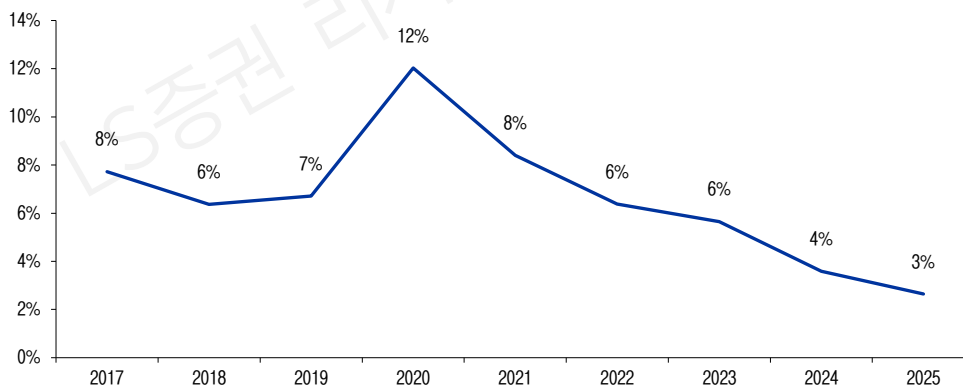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1 EV 향 배터리 폼팩터 M/S 추이(1~4월 누적): 각형 확장세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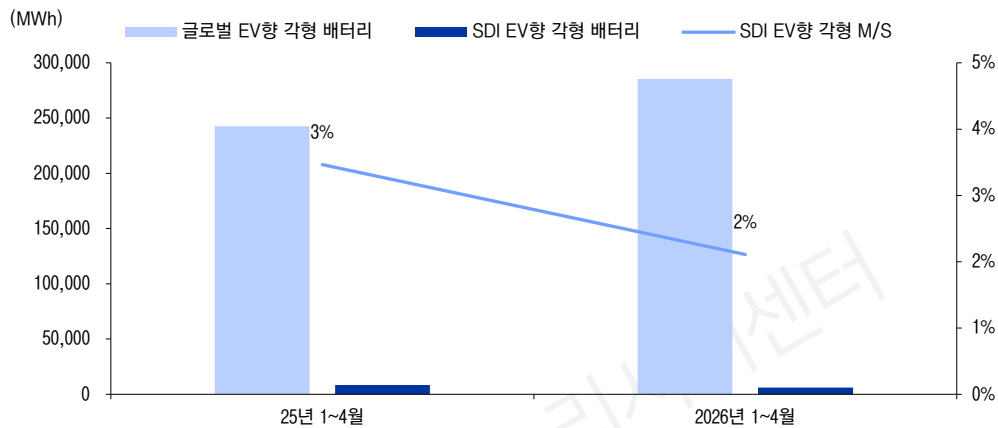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2 EV 향 각형 SDI M/S: 유일한 각형 생산사인 SDI의 글로벌 각형 M/S 하락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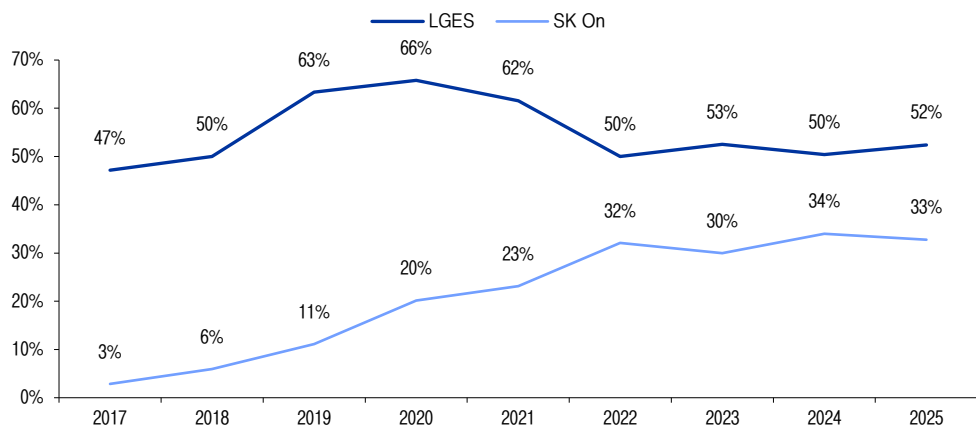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3 EV 향 각형 SDI 탑재량 및 글로벌 M/S 추이(1~4 월 누적): 작년 3%에서 '26년 1~4월 2%로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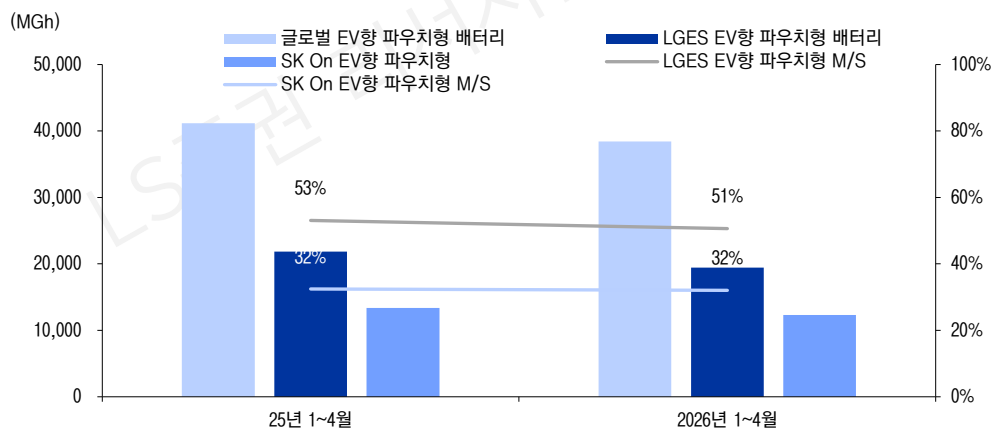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4 EV 향 파우치형 LGES 및 SK On M/S 추이: 양사 선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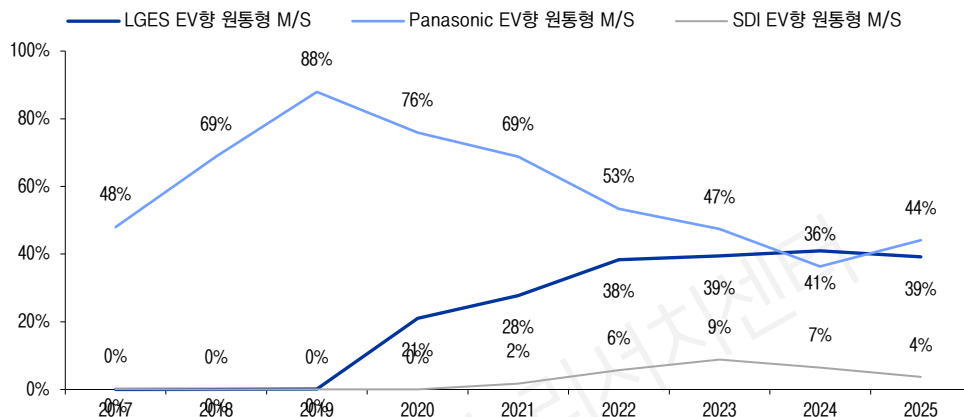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5 EV 향 배터리 파우치형 LGES 및 SK On M/S 추이(1~4 월 누적): '25년과 유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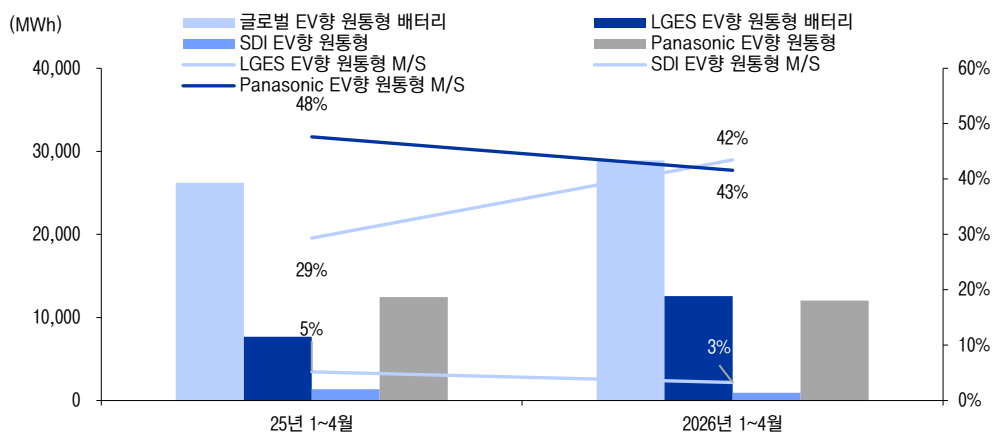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6 EV 향 원통형 LGES, Panasonic 및 SDI M/S 추이: TESLA 향 물량 다수, LGES 과 Panasonic 양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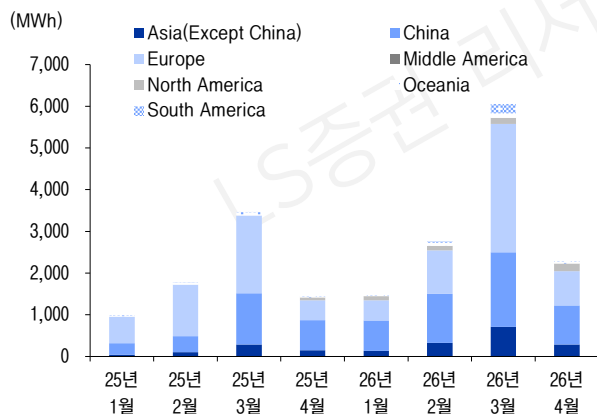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7 EV 향 원통형 LGES, Panasonic 및 SDI 판매량 및 M/S(1~4월 누적): 복미 TESLA 판매하락, Panasonic 비중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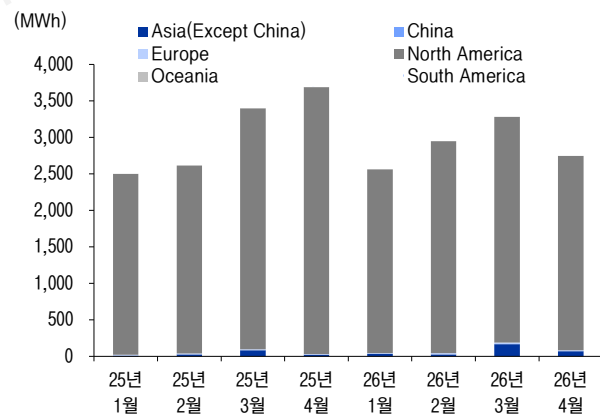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8 LGES의 TESLA 향 EV 배터리 탑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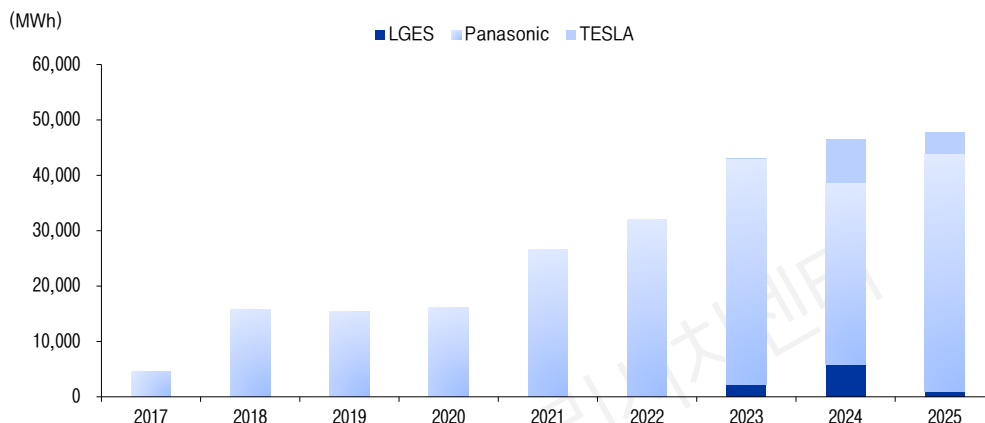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9 Panasonic의 TESLA 향 EV 배터리 탑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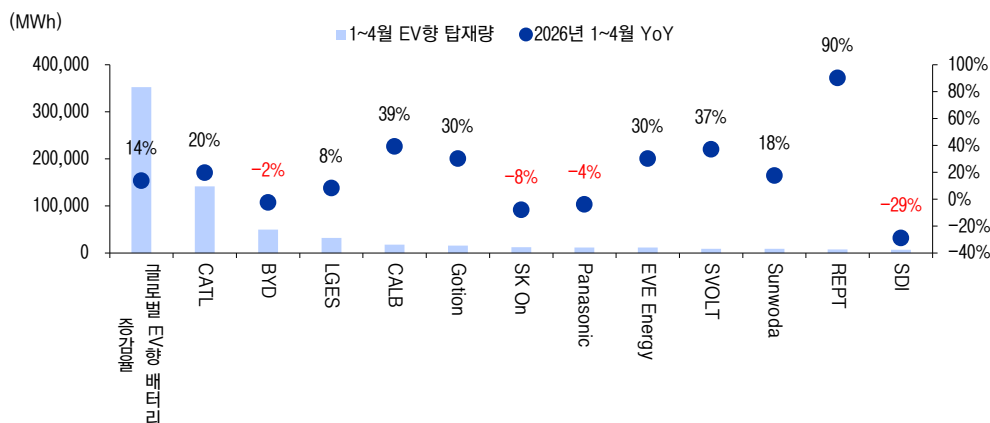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0 TESLA 북미 배터리 공급사별 탑재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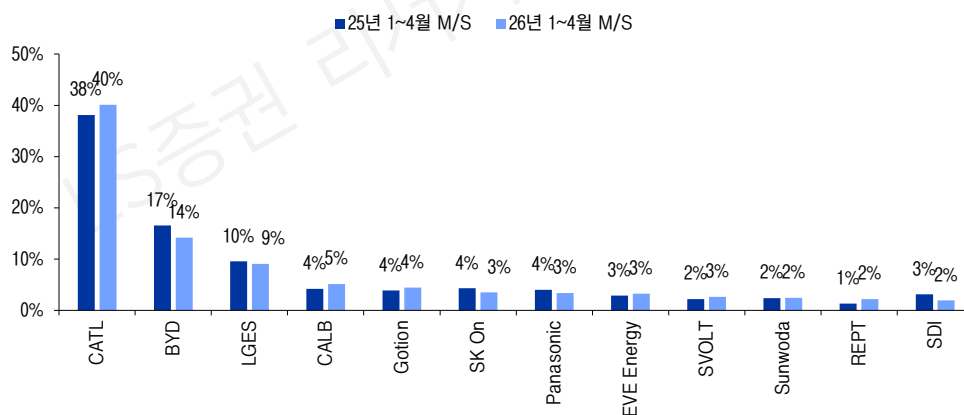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1 글로벌 EV 향 전지 판매량 및 전년대비 증감율(1~4 월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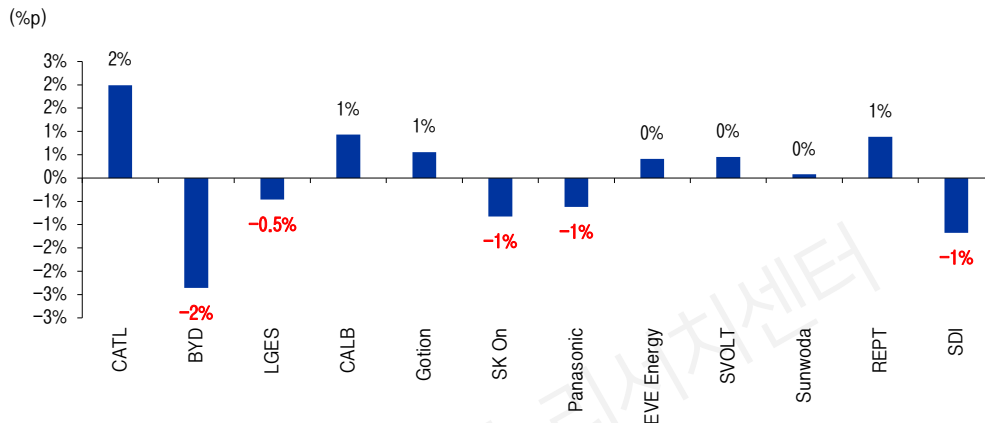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2 글로벌 EV 향 전지 Top 12 사 M/S 추이 (1~4 월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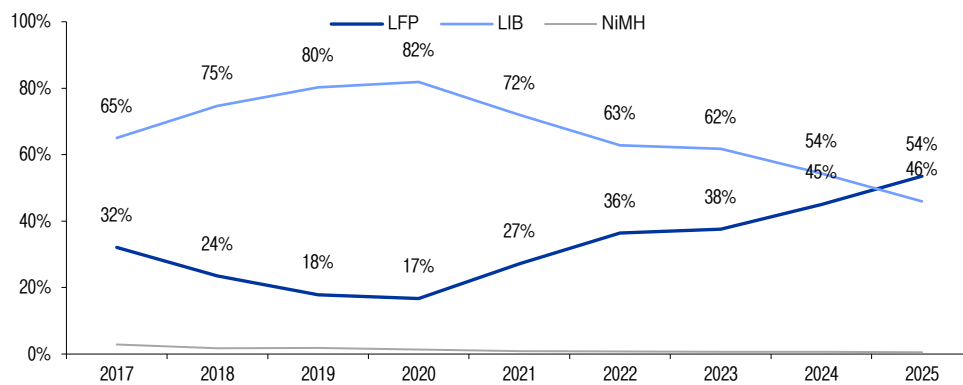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3 글로벌 EV 향 전지 Top 12 사 M/S 전년대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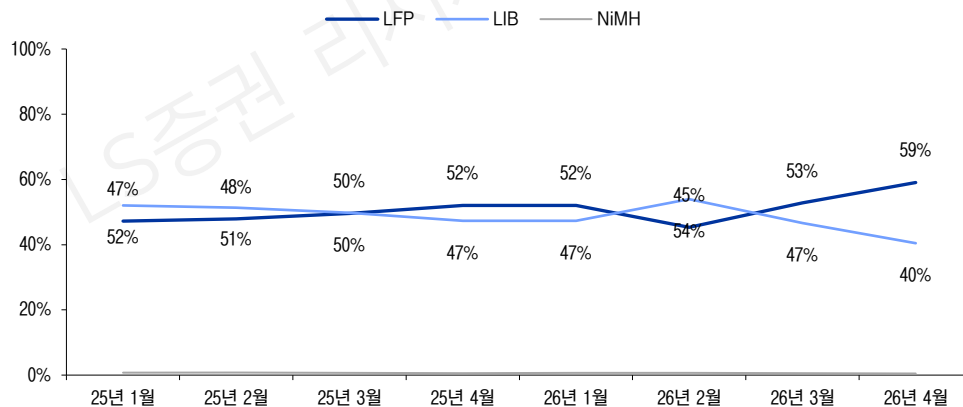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4 글로벌 EV 향 배터리 Chemistry 별 M/S 추이


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5 글로벌 EV 향 배터리 Chemistry 별 M/S 추이



자료: SNE 리서치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정경희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	Buy (매수)	+15% 이상 기대	89.3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±15%로 변경
		Hold (보유)	-15% ~ +15%	10.7%	
		Sell (매도)	-15% 이하 기대		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5. 4. 1 ~ 2026. 3.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. 분기별 갱신)